

당도 높고 감칠 맛... 외국서도 반한 맛

나주 '세지 멜론' 성공 비결은

'세지 멜론'은 '나주배'와 함께 나주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이다. 농산물도 브랜드를 찾는 시대이다. 소비자는 가격이 높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원한다.

나주시 동남쪽에 위치한 세지면 농업인들이 25년 전부터 박과과 덩굴 식물인 멜론을 재배해 전국 최고의 겨울철 멜론 주산지로 자리를 잡기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나주 세지 멜론이 국내는 물론 해외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성공 비결을 들여다 보았다.



겨울 멜론 시장 전국 80% 점유 출하 조절·공동생산제 등 도입 친환경 재배로 품질관리 철저 일본 등 이어 중국 수출 '노크'



멜론을 수확하고 있는 세지 농가.

◇파종·출하시기 조절 등 철저한 품질관리=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아열대 작물인 멜론이 나주 세지에서 재배될 때는 1990년대 초반. 25년이 흐른 현재 세지멜론은 국내 겨울 멜론시장의 80% 가량을 점유하는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6개 작목반(88 농가)이 58ha에서 연간 2710t의 '세지멜론'을 생산하고 있다. 주로 백화점과 호텔 뷔페용으로 납품되고 있는데 타지역 멜론보다 20~3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5kg 한 박스에 13만5000원까지 받을 정도로 품질 면에서 독보적이다.

특히 세지멜론이 대도시 소비자와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까닭은 뛰어난 품질 때문이다. 타지역 멜론보다 당도가 높고 과육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향기가 깊어 감칠맛이 뛰어나다.

처음 멜론재배에 뛰어든 세지면 농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재배 시기와 재배 물량 등이 통제가 안 돼 제 가격을 받을 수 없었고, 농협과 재배 농민간 불신으로 판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10년에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25%까지 치솟아 난방비 부담으로 시설재배를 포기해야 하는 갈림길에 선 적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가들은 작목반을 결성하고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기쁨을 즐기 시작했다. 또 농민들은 멜론이 돈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자 멜론 연합회를 만들어 세지농협과 손잡고 고품질화와 판로 확보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었다.

세지농협과 농가는 먼저 농가별로 파종 희망일자를 받아 파종시기를 다르게 해 생산이 겹치지 않게 했다. 또 작목반 집행부와 농협은 수정 량을 조사한 후 일차별 예상 생산량을 조절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았다.

특히 농협은 선별과 판매를 전담해 농가가 고품질 멜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유통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 출하시기도 5~6월과 11~12월 추운 계절에 집중적으로 생산해 타지역의 생산량이 몰리는 7~9월을 피해 차별화했다. 세지 농가에서 재배·생산하고 있는 멜론 품종은 주로 머스크계로 탱큐와 소나타, 슈퍼VIP, 39L 등이다.

세지 농가와 농협의 이 같은 철저한 품질관리 재배 매뉴얼로 생산되는 세지 멜론은 전국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발휘해 지금은 우리나라 멜론시장의 표준으로 자리잡아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세지멜론이 으뜸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파종시기를 분산한 출하조절과 공동선별·공동출하, 친환경 농법 재배 등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공동생산제 시스템 도입, 유통망 구축 등 앞선 선진 시스템과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됐다.

◇FTA 대응 상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세지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환경 조건도 한 몫을 거들었다. 세지면은 1급수에만 서식하는 '새뱅이'(또랑새

우) 토하정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세지멜론은 미생물 균제인 EM과 홍균, 꿀분·어분 액비를 거름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해 잔류농약이 없어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만봉천이 중심부로 흐르고 있는 세지면은 기온이 온화해 최적의 과실생장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세지면 농가들은 이러한 풍부한 강수량과 일조량을 이용해 고온성 작물인 멜론을 국내 과일로 대중화시켰다. 멜론에 함유된 '베타-카로틴'(β-carotene)과 '리코펜'(Lycopene) 성분이 암을 예방하는데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세지 멜론은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일본시장에 10년째 수출중으로, 지난해의 경우 246t을 수출해 1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에는 싱가포르 국영방송 CH8이 인기 프로그램인 '푸드 소스'(Food sources)에 세지멜론 재배 단지를 소개한 바 있다.

세지 농가와 농협은 기후 변화는 물론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 개량사업인 시범포 파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범포 농가에는 농협에서 일정 수익을 보장한 후 1차에 30포를 재배해 만족스러운 수확물이 나오면 2차 파종 때 하우스 반 동에, 또 3차 파종 때 하우스 한 동에 시범재배한 후 농가 보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지농협은 2년 전 바이러스에 강한 신품종 '소나타 파워'를 발굴하고, 농가 보급에 앞서 마지막 테스트 과정을 진행 중이다.

영산포 홍어 축제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홍어 축제는 홍어 킴을 잡아라, 베스트 홍어 커플 선발대회, 홍어 예쁘게 썰기, 홍어 시식왕 선발대회 등 홍어를 테마로 한 다양한 경연 행사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홍어 깜짝 경매와 홍어무침 대항전, 홍어 연 날리기 등 관광객이 쉽게 홍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공연행사로는 초대 가수 공연과 영산포 가요제, 색소폰 앙상블, 난타공연, 나도 가수다, 남

남평지구 개발사업 혼풍...부지 4만㎡ 매각

2354세대 대규모 단지 조성 박차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나주 남평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혼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구내 단독, 상가 분양이 완료된 데 이어 최근 도시개발사업 부지내 4만2745㎡ 규모의 아파트 부지를 양우건설(주)에 매각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양우건설은 '양우 내안'이라는 대표 브랜드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주택건설 업체로, 매입한 부지에 83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나주시는 "부지 매각대금 167억원 가운데 40%인 70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아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해 4월 농협은행과 체결한 PF대출(미상환 잔액 26억원)을 바로 상환함으로써 시행사로서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남평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2012년 1월 부지 매각 분양공고를 냈으나 업체들의 외면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남평지구 아파트 3개 블럭 가운데 2개 블럭 매각이 이뤄졌다. 앞으로



나주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광주와 빛가람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남평지구에 총 2354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들어서면 생활하기 편리한 주거지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STX건설과 중우건설이 700세대 규모의 '중우 하나리' 아파트를 시공중이며, 양우건설이 이번 계약체결에 따라 838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3개 블럭 가운데 남은 1개 블럭(4만5633㎡)에는 816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지역 농업인 166명 20일부터 월급 받는다

나주지역 농업인 166명이 오는 20일부터 월급을 받는다.

나주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에 따라 6개 읍·면 166 농가가 이달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매월 20일에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여만원까지 월급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가을걷이 뒤 쌀을 수매대금의 60%를 월별로 나눠 선급 형식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농협이 자체예산으로 먼저 월급을 지급하고 나주시가 나라 매입이 완료된 12월에 농협에 연리 6%의 이자를 보전하게 된다.

나주시는 지난 2월 마곡 종합처리장이 있는 남평, 마한, 동강, 다시농협 등 지역 4개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3월 말까지 참여 농가를 접수한 결과 모두 166 농가가 신청했다.

농가가 신청한 물량은 40kg 단위(벼) 3만 8800포대로 4월부터 10월까지 10억9000만원(월 평균 지급액 1억5600여만원)을 나눠 지급한다.

지난 2013년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순천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농가에 월급을 주고 벼 수매대금을 농협으로부터 받아 보전하는 것으로 나주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강인규 시장은 "민선 6기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공동 육묘장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활력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영산포 홍어축제 17일 개막...사흘간 다양한 행사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나주 영산포 홍어 축제가 오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흘간 영산포 단지 체육공원에서 개최된다.

영산포 홍어 축제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홍어 축제는 홍어 킴을 잡아라, 베스트 홍어 커플 선발대회, 홍어 예쁘게 썰기, 홍어 시식왕 선발대회 등 홍어를 테마로 한 다양한 경연 행사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홍어 깜짝 경매와 홍어무침 대항전, 홍어 연 날리기 등 관광객이 쉽게 홍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공연행사로는 초대 가수 공연과 영산포 가요제, 색소폰 앙상블, 난타공연, 나도 가수다, 남

미음악 공연, 나주시립 국악단·합창단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영산포 선창 황포돛배 승선 체험을 비롯해 백호문학관 관람, 나주 천연염색박물관 천연염색 체험, 나주 영산테마파크 도자기체험·매듭공방·의상체험 등이 관광객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김민주 영산포 홍어축제 위원장은 "영산포는 600년 홍어 역사가 살아 숨쉬는 '속성 홍어'의 본고장"이라며 "가족·연인과 함께 축제장을 방문하면 알짜한 홍어 맛도 즐기고, 만개한 유채꽃밭에서 힐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	------------------------------	-----------------------------------	---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최초 월납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1장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가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 (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상일보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유리지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